

한국노총전남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후원하는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추진사업 우수기업 탐방'은 보다 나은 고용환경을 만들고 그 토대위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고용환경개선에 기여함을 인식하도록 집중 홍보 및 캠페인 활동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노사 상호 존중과 배려,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전남지역 노사민정 참여와 협력한 사례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견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제공은 궁극적으로 업무효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사업장이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같은 사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찾아간다. <편집자 주>

농민의 동반자로 세계 농업을 선도하는 종합화학기업

남해화학(주)

정원 대비 20% 신입사원 채용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11년연속 무분규 단체교섭 체결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수출 등서 발생한 이익 환원 국내 농업용비료 저가공급

남해화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농자재 회사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식량생산과 더불어 고품질 농산물과 건강한 휴을 만드는 시대적 사명을 띠고 전남 여수에 자리잡았으며,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진정한 동반자 기업이 되고자 1974년 창사이래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늘 고객과 함께 해 왔다.

농업인에게 고품질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발전 및 식량자급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해온 남해화학은 FTA 확대,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수출과 화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원하여 국내 농업용비료를 저가에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칼슘유황비료, 미생물비료 등 병충해 방제 및 수량증대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비료를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자재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칼슘유황비료의 경우 원예작물과 과수작물에 유용한 칼슘, 황성분 공급 뿐만 아니라 토양

개량효과가 입증되어 농업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제되어 있는 국내 비료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해외비료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나노실리카, 고순도암모니아 신규공장을 준공하는 등 화학부분 신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같은 신규사업 진출은 신입사원 영입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해화학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임직원 윤리헌장, 임직원 윤리경영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업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기업윤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공·사 기관을 막론하고 윤리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윤리적 경영원칙과 신뢰적 기반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은 살아남 수 없으며 윤리적 가치로 준비된 모습을 갖추어야만 오늘날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남해화학도 윤리경영이 하나의 경영수단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와 경영활동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경영이념이며, 세계적인 종합농자재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경쟁력의 원천으로 이해하고 있다.

남해화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우선하는 기업이다.

남해화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998년 ISO 14001 인증, 2004년 환경친화기업 지정 등 대내외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방침을 수립하여 '환경 친화적 기업경영'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를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안전조업을 달성하고자 사고예방과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해화학은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지키고자 노력하는 기업이다



안전보건관리를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일터와 쾌적한 작업환경속에서 안전조업을 달성하고자 사고예방과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진 자율안전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1년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개발한 KOSHA 18001프로그램 인증을 취득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정안전관리시스템(PSM/SMS) 제도를 수행함으로써 유해, 위험성으로부터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 위험성평가 및 공정안전관리를 통한

근원적인 비상사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사고유형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모의 시나리오에 따라 자체소방훈련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시 인근 업체에 응원출동지원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 및 근로의식 증진을 위하여 구급차를 상시 대기하고 구급약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건강검진은 법정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또한 매년 1회 직원 및 가족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남해화학 노사는 원재료 가격 상

승과 내수비료 가격인하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노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2008년 이후 11년 연속 무분규 단체교섭을 체결하였으며, 노사화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노사문화대상, 2017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앞으로도 남해화학은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우수한 제품 개발과 공급으로 농가 소득 5천만원 시대 달성에 기여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신도적 글로벌 농자재회사로서 자리매김 하여 우리나라 농업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최남규 기자/여수=송기홍 기자



“우수제품 개발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 달성 기여”

이광록 대표이사 사장

▶청년실업이 심각하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 2016년 법적 정년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였으며,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여 신규채용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나노실리카, 고순도암모니아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최근 5년간 83명의 신입사원(정원 대비 약 20%)을 채용하였으며, 향후에도 정밀화학, 수용성비료 등 신규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는?

- 임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매년 안전컨설팅 및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자율적인 안전 개선활동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당사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당사와 협력사간 안전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련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외부강사 초청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 사기진작과 애사심 고취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임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축구, 테니스, 마라톤, 낚시 등 20여개 동호회의 활동비, 식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단체산행,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멘토링제도를 통해



신입사원 회사 적응을 돕고, 애사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꼽는다면?

- 당사는 2016년 5월 2일에 본사를 서울에서 여수로 이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근지역 비료지원, 농촌 일손돕기, 복지단체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봉사단은 매달 어려운 환경의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덕목은?

- 남해화학은 “거북신표 비료는 최고다”는 고객의 신뢰와 함께 성장해 왔다.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최고 품질 비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11년연속 무분규 단체교섭을 체결하며 노사가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남해화학은 고객과의 신뢰,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종합화학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회사 발전 우리가 견인한다는 생각으로 역량 결집”

최용선 노조위원장

▶발전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 노동조합이 먼저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상생이 어렵다면 노사협력적 관계를 통해 회사의 발전을 위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사가 원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회사 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조합원 복지 가운데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 조합원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특히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 생활로 연결되는 만큼 결혼하는 조합원에 대한 사원 주택제공,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조합원의 주택구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조를 이끄는데 있어 소신이나 원칙이 있다면?

- ‘조합원이 최우선이다!’ 라는 원칙이래 조합원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노동조합! 소통하는 노동조합! 조합원과 함께 동행하는 노동조합! 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그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단결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통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의 역할을 나눈과 동시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복증진과 함께 신비로움은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의 고충이나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의 애사심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 애사심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진심이 담겨야 한다고 본다. 어느 한쪽에게만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물론 노동조합에서도 조합원이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소개한다면?

- 노동조합이 앞장서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지역주민들이 신뢰하는 남해화학과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겠다. 노동조합은 과정과 결과가 모두 투명해야 단결력이 더욱 결속된다. 그 무엇보다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열린세상을 향해 전진하며 모든 판단기준을 조합원에게 맞추고 조합원의 권익을 확대 증진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건강하고 강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선 조합원들의 일치된 단결과 응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조합원의 이익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최남규 기자